

“중학교 신설 환영” 한목소리

서거석 교육감, 완주서 ‘공감토크’… 삼봉지구 중학교 신설 계획 등 주제 대화 나눠

서거석 교육감이 18일 완주를 방문해 전북 교육정책을 공유했다. 이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서 교육감을 비롯해 유희태 완주군수, 서남용 완주군의회 의장, 김난희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완주문예회관에서 ‘교육감과 함께하는 공감토크’를 개최했다. 관내 학부모와 교직원 300여 명과 함께 진행된 이날 공감토크는 전남 발표한 완주 삼봉지구 중학교 신설 계획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이에 유희태 군수는 삼봉지구 중학교

신설 계획 발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향후 협력을 약속했다. 학부모와 교직원들도 삼봉지구 중학교 신설 계획에 큰 기대를 보이면서 어울림학교 지정 확대, 삼봉지구 통학버스 운영, 학교 밖 청소년 무상급식 등을 건의했다. 한편 서 교육감은 이날 완주교육지원청을 찾아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교육감과 함께하는 공감 토크’는 서거석 교육감이 14개 시·군을 차례로 방문해 지역 교육현안을 주제로 교

직원과 학부모 등 교육가족들과 소통하는 자리다. 지난 11일 무주를 시작으로 오는 9월 까지 도내 14개 시·군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서 교육감은 “삼봉지구에 신설되는 중학교는 학생들이 더 넓은 꿈을 품고 온전히 성장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완주뿐만 아니라 도내 교육현장을 세심하게 살펴 우리 학생들이 가장 좋은 교육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해 유희태 완주군수, 서남용 완주군의회 의장, 김난희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8일 완주문예회관에서 ‘교육감과 함께하는 공감토크’가 열렸다.

전북자치도 혁신 아젠다 발굴·협력관계 구축

전주대, 다자간 정책 회의 도내 주요 기관 ‘한자리에’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지난 17일 본교에서 도내 15개 기관이 모인 다자간 정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를 비롯해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전북분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북분원, 전북테크노파크, 전북연구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캠퍼스융합기술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네이버클라우드 등 지자체, 기업, 정부출연 연구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문 연구기관 및 정책 연구기관의 기관장과 관계자, 전주대 보직교수 등이 함께했다.

지·산·학·연 다자간 정책 회의를 통해 각 기관은 기관의 연구 분야와 성과를 공유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전략 산업 분야의 공동연구, 지방소멸을 타개하기 위한 인재 양성,



전주대학교는 지난 17일 본교에서 전주 등 도내 15개 기관이 모인 다자간 정책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전주대학교 제공)

전문가 교류 및 연구시설 공동 활용 등 다양한 유형의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농·생명·바이오, 푸드테크 분야를 비롯해 에너지, 미래 수송기기, 특수복합 소재, 문화콘텐츠 등 전략산업 분야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이 처음 개최된 이번 다자간 회의를 통해 향후 일정 주기(분기)로 참여기관과의 정기 협의 및 현안에 따라

비정기 회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해원 특임(산학)부총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전략산업 발전과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도내 주요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정책을 발굴하고, 다자간 소통할 수 있는 귀한 자리였다”며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지·산·학·연 협력으로 지역 대학의 역할과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특수교육 분야 개별화교육계획 운영 내실화

전북자치도교육청, 개별화교육 심화 연구 가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8일 전주 평화의정당에서 학교 관리자와 교사 300여 명을 대상으로 ‘2024 개별화교육 심화 연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개별화교육은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제공되는 교육과 지원을 포함하는 실행 계획 및 과정, 결과에 대한 평가를 기록한 것이다. 이날 연구에서는 나주특수교육지원

센터 김동민 교사가 교육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개별화 교육 작성의 실제’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연구를 통해 개별화교육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최상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객관적인 절차와 방법을 확보하는 기회가 됐다. 특히 올해는 14개 지역교육지원청

중심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이 배치된 모든 학교에 개별화교육계획 운영 현황 점검 및 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른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 4월 유·초·중·고·특수학교 관리자 및 교사, 전문직 등 620여명을 대상으로 개별화교육 기초 연구를 가졌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창업가정신 함양교육 교원 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8일 전주 비전대 행복가속사 비전컨벤션홀에서 지역과 연계한 창업교육 운영 방안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연수에는 창업체험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도내 교원 54명이 참석해 창업가정신의 중요성 및 단위학교에서의 창업체험교육 방향을

공유했다. 특히 AI 연계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 주식회사 씨엔 최훈원 대표가 강사로 나서 창업가정신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창업가정신 교육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정주교 김윤섭 교사가 창업가

정신 함양교육 생태계 조성사업 중점학교(4개교-전주제일고, 마령고, 세인고, 정주고)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주고는 청소년 비즈쿨 페스티벌 및 학생 창업캠프 참여, 아산유스프러너 활동과 교내 창업 동아리를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개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자치도교육청, 2024

급여업무 소통의 날 운영

업무처리 주의사항 등 안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8일 전주교육지원청 전산교육실에서 직속기관 급여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4 급여업무 소통의 날’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는 급여업무 담당자가 대부분 신규·저경력 공무원으로 급여 시스템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업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기획됐다.

이날 13개 직속기관, 63개 고등학교, 6개 특수학교 급여업무 담당자 80여 명이 참석해 급여업무 전문가인 본청 담당자와 실무 매뉴얼을 활용한 급여작업 및 업무에 관해 소통했다. 급여업무 담당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전북교육청은 매일 한 차례씩 급여업무 소통의 날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급여작업 기간 중 하루를 지정해 오전과 오후 2회에 걸쳐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해당 월의 급여업무처리 주의(특이)사항 안내 및 급여작업 방법, 급여 업무매뉴얼 교육, 신규·저경력 급여업무 담당자 간 상호교류 및 소통의 장 제공 등이다.

최신자 재무과장은 “전북교육청에서 급여업무 매뉴얼을 제작·배포했으나 매뉴얼에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없어 ‘급여업무 소통의 날’을 운영하게 됐다”면서 “이를 통해 급여업무 담당자들의 업무역량이 강화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무역학과 대학원생들 국제 컨퍼런스 2위상 수상

전북대학교 무역학과 해소원·기석나 박사과정생(지도교수 최경숙)이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 ESCAP)와 중국 절강대학교 해양학원이 공동 주최한 국제 컨퍼런스(이하 Y-RIB)에서 2위상인 ‘Second Runner Best Paper’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 6~8일 중국 저우산시 절강대학 해양학원에서 열린 국제 컨퍼런스는 국제해사기구(IMO) 전 사무총장과 세계은행(The World Bank),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중국 교통운수부, 저우산시장 등 국내외 기구 및 부서 관련자들이 대거 참여해 해상운송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논의했다.

이 컨퍼런스에서 해소원·기석나 박사과정생은 중국 30개성을 대상으로 디지털 경제가 중국 물류산업의 탄소배출 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 논문을 발표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북대 최경숙 교수가 지도를 맡아 진행된 이 연구는 다양한 산업에서 4차 산업혁명을 통한 기술 혁신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과 탄소배출 효율과의 역(逆) 관계를 규명, 이 둘의 관계에서 산업구조의 업그레이드가 탄소배출효율을 더욱 향상시키는 매개적 요인임을 밝혀 냈다. 최경숙 교수는 “이번 국제 컨퍼런스의 핵심 키워드가 ‘혁신’과 ‘지속가능성’이었던 만큼 물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는 우리의 연구가 주목을 받은 것 같다”며 “향후 다각적인 연구를 통해 물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maeil.com

학교도서관 전문인력 확보 도내 독서교육 강화한다

전북자치도교육청, 재량범위 내에서 디지털 세대 문해력 높이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재량범위 내에서 학교도서관 전문인력을 확보해 독서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디지털 대전환에 따라 미래 사회에서 필요한 핵심역량을 키우기 위한 독서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또 독서에 대한 흥미 부족과 문해력 및 자기 표현력이 낮은 디지털 세대들의 문해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특히 ‘2023 국민독서실태조사’ 결과 전북지역 학생 독서량이 감소한 이유다. 18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학교도서관 전문인력 목표 배치를 18.8%에서 41.5로 확대했다. 현재 전북은 767개교에 학교도서관수가 755개다. 이에 따른 전문인력 즉, 사서교사는 198명, 공무원사서는 115명으로 총 313명이다. 학교도서관 전문인력 역량강화

로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다양한 독서활동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무원 사서 또한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인력으로, 정규교육과정 수업권한을 제외한 독서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 이와 함께 추천도서 100선 함께 읽기 캠페인 등 독서 생활화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는 국민실태조사 결과, 학교 현장에서의 독서 지도 활동이 학생 독서를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학생들은 수준에 맞는 책 소개와 학교도서관 이용 편의성 제공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독서인문교육 강화를 위해 도내 각급 학교에서 테마별 학급독서프로그램, 책 꾸러미 지원, 국어중점학교, 전북 시 페스티벌 및 독서토론탐담 등을 운영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지역과 함께 특별자문위원회 위촉식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8일 5층 회의실에서 ‘지역과 함께 특별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가졌다.

‘지역과 함께 특별자문위원회’ 위촉

지역사회 전문가 12명 구성… 지역 교육 자문 역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8일 5층 회의실에서 ‘지역과 함께 특별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 우수 인재 유출, 지역소멸 위기 등 지역 교육계가 안고 있는 현안에 대해 지역사회 특히, 민간의 현장 전문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에 유치원, 초·중·고, 장애인 등 지역사회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특별자문위원회는 지역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자문 역할을 맡게 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 교육청이 손잡고 전북교육을 발전시키는 새로운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거석 교육감은 “지역의 교육 문제를 지역이 주체가 돼 문제를 제기하고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특별자문위원회와 교육청이 머리를 맞대고 공공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 ‘지역과 함께 하는 미래교육’을 힘차게 추진하자”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학원연합회는 지난 14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전북학원연합회, 전북자치도교육청과 정책간담회

늘봄학교·학생 자율 선택권·내년 예산확보 등 주 내용

전북학원연합회(지회장 손경호)는 지난 14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 5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날 정책간담회는 늘봄학교, 학생의 자율 선택권, 개인과의교습에 대한 현장 점검, 2025년 예산확보, 법정의무교육 미 이수자 과태료 처분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다. 손경호 회장은 “전북에듀메이가 부분적으로 확대된 점을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으로 전북교

육청과 함께하는 학원연합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서거석 교육감은 “공교육과 사교육에서 전북교육정책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또 보완점은 무엇인지 현장중심의 교육정책을 마련해 전북의 교육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